



건설협회 도회 올림픽 후원금 전달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지난 12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후원금 500만원을 중소기업 사랑나눔 재단에 전달했다.



◇한거희씨



◇백영욱씨



◇김정섭씨



◇한준모씨



◇양홍춘씨

한거희 뉴보텍 대표 강원경제인상 대상

- 연구개발상 백영욱
- 건설혁신상 김정섭
- 창업성공상 한준모
- 특별상 양홍춘

19일 경제인페스티벌서 시상

한거희 (주)뉴보텍 대표가 제11회 강원경제인상 창조기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7 강원경제인상 심사위원회는 최근 1, 2차 심사를 거쳐 경영지표, 신사업 발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뉴보텍을 강원경제인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990년 설립된 뉴보텍은 상하수도 관련 토털 솔루션을 공급하는 수질 환경전문기업으로 원주 등 전국 5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연간 매출액 400억원대 중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159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기술력 구축에 27년간 매진해 왔다. 아프리카,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올해 화장품 마스크 팩 제조업에도 진출하며 3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특히 도내 협력·운송업체들과 거래하며 복지사업 후원을 하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개발상은 (주)유바이오로지스 백영욱 대표에게 돌아갔다. 춘천에 공장과 부설연구소를 둔 유바이오로지스는 방역용 백신개발·생산 전문 바이오펀처로 2015년 '유비콜'이라는 경구용 콜레라백신으로 세계에서 3번째,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에 공급하고 있다. 빌게이츠재단이 후원하는 펀드 투자를 받아 우수생산시설을 구축해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과 동춘천산단에 공장 신설 추진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설혁신상은 1995년 설립돼 국가 기반시설공사와 문화재 수리업 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하고 있는 원주 신진종합건설의 김정섭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진은 산학연 협력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양성에 나서고 있다.

창업성공상은 2012년 창립된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에이치엔써지컬의 한준모 대표가 선정됐다. 춘천에 있는 에이치엔써지컬은 혈관결찰용클립을 최초로 국산화해 수출을 하고 있다. 특별상은 2006년 창립된 친환경 합성목재 생산업체인 (주)백향우드의 양홍춘 대표가 선정됐다. 인증, 특허 획득과 '데크로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조달우수제품등록이라는 성과를 이뤘고,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거희 대표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되며, 백영욱, 김정섭, 한준모, 양홍춘 대표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19일 오후 3시 정선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에서 시상한다. 신하림기자 peace@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017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강원경제, 세계로 미래로

■ 일정 : 2017. 9. 19(화)~9. 20(수)

■ 장소 :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 하이원CC



세 부 일 정

- 1) 1일차 : 9월 19일(화),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
 - 11:00~13:00 - 강원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간담회
주최 :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
 - 13:30~14:30 - 강원일보 CEO아카데미 수강생 간담회
 - 15:00~15:40 - 개회식 및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창조기업상 △연구개발상 △건설혁신상 △창업성공상 △특별상 등 5개 부문
 - 16:00~16:30 - 「강원경제인포럼, 기조연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중요성과 과제”
 - 16:30~17:10 - 주제발표 1 : 폐광지역 경제지립기반 구축 방안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주제발표 2 : 평창올림픽 관광분야 레거시 창출 (허중욱 강원대 관광학과 교수)
 - 17:10~18:10 - 종합토론 (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
좌 장 : 구정모 강원대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토론자 : 김석중 강원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성조환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양민석 도 경제진흥국장, 한중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 18:30~20:00 - 환영만찬
- 2) 2일차 : 9월 20일(수), 하이원호텔 및 CC - 오찬 제공
 - 06:30 (하이원CC) - 강원경제인친선골프대회 티오프 (오후 시상식)
 - 08:00 ~09:10 - 조찬강연 - 정영훈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원도 중소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숙식, 참가비 무료이며 골프대회 참가비는 자부담입니다. (문의 : 033-258-1340~2)

주최 : 강원일보사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후원 : 주회사 강원랜드 강원도 정선군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강원지역본부 FASHION LANDMARK M 롯데주류



건설사 실적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건협, 전자승인서비스 도입
업무 간소화... 투명성 확보

건설사 실적신고가 인터넷에서도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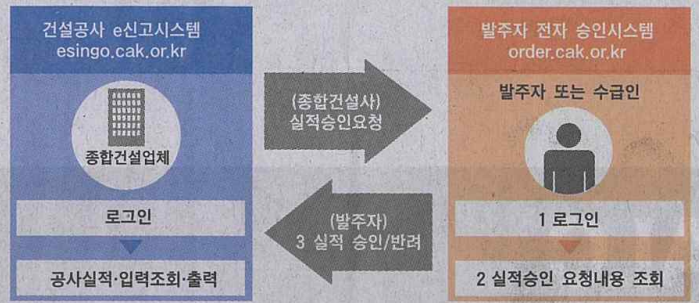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건설업체가 온라인으로 작성한 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건설사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공인 전자서명으로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건설사(esingo.cak.or.kr)와 발주기관(order.cak.or.kr)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승인을

하면 된다. 발주자는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건협은 이 서비스로 실적신고 업무가 대폭 간소해지고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매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때마다 먼 거리에 있는 발주자를 직접 찾아가 기성실적증명서에 확인 도장을 받아야 했다. 발주처도 찾아오는 건설사를 일일이 응대하느라 행정 부담이 만만찮았다. 실적신고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위·변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적신고 기관들은 건설사와 발



주처가 제출한 실적 자료를 직접 대조해 가며 위변조를 찾아냈다.

건협 관계자는 "이 서비스 개시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서류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공사실적 신고·평가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건

설업체도 원거리 발주자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인적·물적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발주자 기성실적 전자승인 서비스와 기존의 대면 제출방식은 당분간 병행된다. 김태형기자 kth@

불법하도급·임금체불 '태풍' 분다

일선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에 따른 무더기 제재 경고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와 82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건설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최악의 경우 일부 건설사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3개 건설사가 운영 중인 55개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현장 402곳을 추려내고 도급금액이 높은 업체 및 문제사업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지방국토청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국 53개 건설사의 55개 건설현장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불법하도급을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무등록하도급,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집중점검을 완료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최종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현장을 우선 선정하고 도급금액과 문제사업장을 원칙적으로 대상 현장을 결정했다"며 "이달 말까지 점검을 거쳐 다음 달이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국토부와 같은 현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불법하도급이 아닌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임금체불에 대해 살살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적발 현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협 강원도회,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간담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2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린 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분할발주 확대, 품질 등에서 일반공법과 차이가 없는 특허 또는 신기술 공법의 무분별한 적용 지양,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개선 등이다.